

# 社說

## 의견수렴 위한 적절한 방안 모색 필요 — 교수 채용시 학생참여 요구에 부처

교수채용시 학생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총학생회, 교육과정심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수채용에 대한 학생참여 여부가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날 31일 학교당국에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교수공개채용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제시를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교수협회는 구두답변으로 교수채용시 학생참여에 대해 학생의 교감권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교과자가 교수채용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한편 교수채용시 학생참여는 난이 적잖은 과제를 빚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모교 교수채용과정에서도 나타나듯이 현재 학생들은 교수채용이 교수 학교당국이 일방적으로 교수를 채용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서류심사의 비민주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학생들도 현실적으로 피교육자로서 필요한 전공분야에 대해서 또는 진보적이고 능력있는 교수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수측은 학생들의 의견수렴은 가능하나 직접적인 참여는

교과정책해라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그간 등록금협상, 교양과목신설등 학생들의 학사행정참여폭이 확대되어왔으나 교수채용에 관한 문제는 금기시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수채용시의 학생참여가 단순히 교수 학생간의 반목과 대립만을 조장하는 요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모두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전 교수채용시 지역·학년·연중심의 채용, 비공개채용 문제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단순히 학생들의 의견을 교관참모로 간주하기 보다는 학교당국과 교수측은 학생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해 학생의 견수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와 구체적인 실질적인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무조건적인 참여 요구보다는 학생으로서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참여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교수와 학생이 함께 의견을 모아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교수채용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유비무환의 자세로 인재(人災)막아야 — 수해로 드러난 행정 부실을 보고

한국의 가을은 높고 푸른 하늘로 상징되어 왔고 풍요와 결실이 있는 넉넉한 계절로 표현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한주는 때늦은 폭우와 그에 따른 수해로 해서 높고 푸른 하늘의 아름다움도, 넉넉함도 결코 느낄 수 없었다.

엄청난 자연의 힘앞에서 인간은 너무도 왜소하고 나약한 존재일 수 밖에 없었다. 산사태로 집이 매몰되고 방앗간까지 물이 들어와 주거환경이 파괴되는 이수리강 속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에서부터 전화불발이나 전기·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불편을 겪은 사람들에까지 이번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우리학교의 경우도 서울캠퍼스는 몇몇 단대의 정전으로 휴강 사태를 겪었고 수원캠퍼스는 도서관 대출의 일시적정지와 같은 수해를 당했다. 물론 이번 수해의 규모로 볼 때 극히 경미한 피해라고 할 수 있고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수해가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라고 하는데 있다. 일기예보의 부정확성, 유수지 펌프의 미약한 용량, 부실한 한강의 뚝 등 많은 실수가 이번 수해의 규모를 더욱 크게 만들었다고 한다. 사실 통계적으로 볼때 우리나라의 치수사업예산은 이웃 일본에 비해 절반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행정체계는 대비보다 복구에의 생과사이에 더욱 신경을 쓰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이 지경에서 누구의 잘못을 따지고, 정부의 무능함을 알기할부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다만한 과제는 얼마나 빨리 이번 수해를 복구하고 또 얼마나 완벽하게 이번 수해로 발견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다시는 이같은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느냐에 있다.

정부는 이번 수해 복구를 위해 주택 복구지급을 대폭해주고, 시멘트와 공업원자재들을 조기 방출한다고 발표했다. 또 일간지와 각 언론사도 수재의연금과 의연품을 모금하고 있으며 본사도 오늘부터 수재의연금을 접수한다.

군·관·민 모두가 수해 복구의 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수원 캠퍼스 학생들은 지역사회를 위해 신갈주변의 수해복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어려운 일을 함께 이겨 나가는 슬기로운 모습과 서로 돕고 재해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노정권은 지난해에 유보했던 중앙경비를 치운다는 자세로, 행정 실무 담당자들은 이번재해가 남의 책임이 아닌 바로 자신의 책임이라는 겸허한 자세로, 모든 국민은 모두가 수해를 당했다는 마음으로 이번 재해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차기 대권구도 맞물린 파워게임

## 국회는 표류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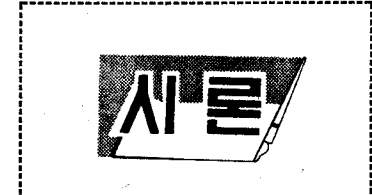
9월 10일 오후 2시, 제15회 정기국회가 개최됐다. 물론 민주당의원들이 참석한 말 그대로 반쪽짜리 국회였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평민당 의원들은 마포 제2당사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등원거부 결의를 했음은 물론 예정된 결과였다.

왜 국회는 표류하는가. 90년대 한국의 정치상황은 어찌서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입만 열면 국민의 대변자임을 자처하면서 정작 실재적으로 국민을 위한 중대한 현안들을 처리해야 하는 정국회를 개표휴업상태로 몰아가고 있는가.

해답을 내리기는 간단치 않지만 개표휴업상태인 오늘의 국회의 위상을 분석해내는 것은 엄청난 내외적 변화가 예상되는 90년대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 한국이 선택해야 할 미래모습을 미리 예견해 보는 즐거움은 있는 듯하다.

국회의 공전, 즉 제15회 정기국회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근본적이고도 직접적인 이유는 물론 3당 통합이다.

3당 통합직전의 4당체제에서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평민당은 열띤 보기에 전략적 제휴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때만 해도 중간평가 등과 관련하여 민중-평민의 정책연합설이 그럴 듯하게 유포되었고 또 실제로 여당인 민주당의 차기 대권구도와 평민당의 대권전략이 동상이몽일 망정 서로간의 이해의 폭을 넓혀가면서 마후의 밀월(?) 관계를 형성,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포스트 노(盧)를 겨냥하고 30년 정치 이미지를 하루아침에 누에 허물버트듯 한 김영삼씨는 통합된 순간부터 여러 내부의 만만치 않은 도전세력에 직면한다.

물론 30여년 동안 닦고 닦은 그의 정치행태가 그를 버려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사건건 그를 괴롭힌 것은 과연 그에게 정국운영의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시험받은 데에 있다.

초기에 기우뚱거리듯이 보이던 그의

원 사퇴를 예상하면서 강편치를 날렸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분석이며, 이 과정에서 김영삼씨 진영은 당내외의 저항과 불만을 감수하면서 차기 포스트 노를 향한 가시적이고 보다 근접하게 되는 성과를 얻어내고자 의도적으로 이러한 사퇴정국과 공전국회를 예

구도와 매우 긴밀한 함수관계를 갖고 있으며 그 성사여부와 관계없이 김대중씨의 현실적인 위상을 높여주거나 최소한 현위치를 교수해 줄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평민당은 민주당의 내각제 개헌 포기선언과 지지자의 전면-조기 실시



민중(民衆) 사퇴선언(辭退宣言) 조선(組選) 발표(發表) 9월 11일(日) 제15회 정기국회 개회식장의 텅

## 40여년 누적된 정치모순의 극명한 표출 국민의 정치역량 결집 정치권에 경고해야

한보가 이재는 여권의 제2자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는데 그러한 와중에서 김영삼씨는 확실하게 적과 아군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구분이야말로 포스트 노를 겨냥, 이를 획득해내는데 가장 큰 성과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야권에서 최대의 정적으로 버티고 있는 김대중씨였고 김대중씨의 태도를 피하고 감정을 달래기에는 서로간의 정치행태가 용납할 수 없었으며 혹여 피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비틀거리는 틈을 여권의 어느 누가 파고 들든지 모르는 상황에서 택한 것이 날치기통과라는 강공책이었을 것이다.

자신의 손을 들어줄 가장 강력하면서도 유일한 후원자인 노태우씨의 정치 부담을 덜어주고 노태우 정부가 역사적 평가를 염두에 두면서 실패를 기울고 있는 북방정책으로 대표되는 외치를 도와주면서 차기를 위한 내치 경험을 쌓으려는 김영삼씨의 정국운영 구도는 최대 걸림돌인 김대중씨의 평민당에 대한 카운터펀치인 날치기통과로 과시했던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최악의 경우 야당인 평민의원들의 전

상하면서도 밀어붙일 수 밖에 없었다는 결론이다.

반면에 야당인 평민당과 김대중씨의 입장은 조금 더 복잡하다.

우선 최대 정적인 김영삼씨의 부상을 철저히 견제하면서 자신의 대권과 14대 총선에서의 나태우로의 승리를 위해서 선택한 카드가 사퇴정국이며 곧 공전국회 사태이다.

김대중씨의 정치행태에 발목을 잡는 것은 언제나 '퇴진론'이었고 그 부담은 이제 여권의 제2인자로서, 위상을 굳혀가고 있는 김영삼씨보다 김대중씨 자신에게 더욱 큰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자신의 위상을 굳건히 고수하면서 새로운 도약으로 향하기 위해서 김대중씨가 야권통합 카드를 사퇴정국과 연계하여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최소한 야권통합의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비록 퇴진론이 기세를 부리기는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런 퇴진론 자체가 현실적인 김대중씨의 위상을 확인해 준다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물 건너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야권통합은 야권이 갖고 있는 차기대권

등원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퇴정국 또는 공전국회를 최대한으로 연장하여 민주당의 대권 선두주자인 김



“동고동락(同苦同樂)”

이철식  
(동문·사학 81)

사람을 소중히 꿈을 소중히

# 잃어버린 꿈의 반쪽을 보고 왔어요.



젊은이는 조국을 닦아간다고 했는가.  
아침은 가치관을 만들어 주고  
자연은 아름다움의 기준을 심어준다고 말이다.

“내 조국은 관문에서 한라산까지가 전부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나, 나는 과연 누구일까. 매일 아침 똑같이 일어나서 학교 가고 친구 만나고, 눈 앞의 작은 이익에 울고 웃고 현명한 판단일 것이라고 계산하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그런 나의 모습에 조금은 불만이 있었어요.”  
서강대학교 개교 30주년 기념 백두산 등정팀의 일원으로 백두산을 다녀온 김정혜(22)씨 역시 뜨겁기만 한 가슴에 비해 쉬이 결론은 나지 않는 물음을 가졌었다.

“백두산에 오르면서 시야가 점점 넓어질수록 눈 끝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장엄한 산하를 가진 조국의 한 부분인줄은 정말 몰랐던거죠. 자기가 오리엔트만 알고 있던 백조, 꼭 그런 기분이었어요. 내 잃어버린 반쪽을 찾았다고나 할까요.”

사사로운 이해에 얽매이지 않고 기쁨에도 슬픔에도 항상 초연했던 조국, 그 길은 산하에서는 항상 의연함이 강 같이 흐르는 조국을 본것이다.

“앞으로 교단에 서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너희는 백두산의 그 슬기로운 정기로 태어난 아이들이다. 그 산만큼 깊고 큰 꿈을 가져라 라고 말예요.”

꿈을 향해 의지를 불태우는 젊은이기를 찾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된 이야기는 대학신문과 소개하고 소정의 고료를 드리겠습니다.  
보내실 곳 : 서울 중로구 평동 108-2세월기획 제작12국 대학지광고팀  
김 주연, 김 영일 TEL. 724-0553

인재와 첨단기술의  
**三星**

꿈을 실현하는 젊은이들 4  
백두산 앞에서 김정혜(서강대 영문4) 씨